

삼성전자, 바이오시밀러로 세종시 입주

삼성그룹 계열사 신규투자 계획 ... 웅진그룹 계열사도 입주 유력

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바이오시밀러(Bio-Similar)를 통해 세종시에 입주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.

여권 관계자는 “삼성그룹 계열사가 세종시에 가는 것으로 들었다”고 말했으며, 한 시장 관계자도 “삼성그룹이 세종시에 신규 투자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”고 밝혔다.

이에 삼성전자는 세종시의 성격이 첨단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어 신수종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시밀러의 세종시 입주를 제안했으나 정부 측이 더 큰 규모의 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

한편, 세종시에 들어올 중견기업으로는 웅진그룹의 계열사가 유력하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.

그러나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“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확정된 게 아무 것도 없다”서 “투자 의사가 있는 곳도 막판까지 신중을 거듭하고 있어 아직은 모든 게 유동적인 상황”이라고 전했다.

정운찬 총리는 1월6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에게 주례보고를 하면서 세종시에 투자 의사를 밝힌 관련기업들의 명단도 함께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1/06>